

청소년의 외식 경향 실태 조사: 중·고생 지역별 비교 연구

조혜영* · 김선아**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4년 6월 3일 접수)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Patterns of Youth: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Different Regions

Hye-young Jo* and Sunah Kim**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Korea Cyber University, Dept of Social Work**

(Received June 3, 2004)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ating-out behavior patterns of youths, especiall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1600 questionnaire surveys were distributed and 1487 were used for analysis. In order to consider regional differences as well as overall characteristics of youths' eating-out behaviors, the subjects were evenly sampled from north Seoul, south Seoul, big cities, middle/small cities and small towns. As for the frequency of eating-out, 62.7% of respondents answered once to twice per week. For the case of more than 5 times of eating-out per week, the respondents from south Seoul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For the case of no eating-out, the highest frequency was shown from the small towns. As for the most frequently visited place for eating-out, 33.6% of respondents answered Korean style restaurants, and 17.6% Boon-sik(Sanck-bar). Regarding the preference of Korean style restaurants, the highest rate was shown from the residents of big cities. For the question of when they eat out, 89.6% answered dinner and 6.3% lunch. For the question about reason of choosing particular restaurants, 61.5% of respondents referred to tastes and 16.6% price. For the question of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eating out, 52.6% point out "meal solution" and 25.6% "for meeting." As for the people accompanied when eating out, 67.2% of the respondents answered family. For the cost of eating out per person, 45.7% of the respondents spent 2000-4000 won for lunch; 31.1% spent 5000-10,000 won for dinner; 33.7% of the respondents spent more than 20,000 won for the special events. Regarding the regional differences of eating-out cost, respondents from south Seoul tended to spend the biggest amount of money for lunch, dinner and special day.

Key Words : youths' eating-out behavior,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eating-out frequency, eating-out cost, eating-out place, eating-out time

I. 서론

오늘날의 청소년은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해 온

세대이며 국경을 넘는 대중문화를 접해온 세대이자, 인터넷 등 발달된 통신 매체에 익숙해진 세대로서 이들의 소비행위도 이러한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

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사회구조 및 가족생활 양식의 변화로 외식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 브랜드 외식 업체의 국내 진출 및 패스트푸드 업계의 급속한 성장, 편의점 및 간이음식점의 성장 등은 청소년들의 음식 소비 양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가족 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서, 핵가족화의 진전과 더불어 1세대 또는 단독 가구의 증가, 세대구성원 수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탈가족화 및 개인화 현상, 여가시간의 증가 등은 개인 또는 가족의 외식기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¹⁾ 이와 함께 외식행위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식생활 양식이 서구화되어졌으며, 외식을 하는 의미가 변화하는 등 문화적 풍토 변화도 외식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²⁾ 또한 외식산업 성장도 외식 패턴 및 외식문화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80년대 경제성장 이후 여가 문화의 대중화, 다양화 시대가 열리면서 외식산업은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요식업, 식당업, 음식업이라고 불리던 말이 외식산업이라는 용어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한 햄버거, 국수, 치킨 등의 체인점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 브랜드의 도입과 국내 브랜드의 개점 등으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선진국형 사회문화 구조를 갖추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외식을 즐기는 인구는 더욱 증가하였다. 소득이 낮을 때는 먹는 행위는 단지 생리적 욕구 충족 행위에 그쳤으나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식사는 단지 배고픔을 달래는 행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며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청소년 세대의 외식 소비는 기성세대에 비해 나름대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식도락 지향적 음식소비 태도이다. 전국의 중고생 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생 10명중 8명 정도가 먹는 것은 사람이 사는데 즐거운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보다 맛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입맛이 서구 지향적으로 변

해가고 있다. 특히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혁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입맛의 서구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실제 외식 종류 중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게 했을 때에도 매년 중고생의 40% 정도는 양식을 선호한다고 대답하고 있어서 80%에 육박하는 부모세대의 한식 선호율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³⁾ 특히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는 중고생 등 젊은 세대의 독자적인 먹거리 문화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⁴⁾⁵⁾⁶⁾ 이밖에 채식보다는 육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간식이나 군것질을 즐기는 경향으로 10중 8명 정도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중고생이 좋아하는 간식은 스낵이나 쿠키 같은 과자류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과자류를 특히 좋아하며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라면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또한 청소년들의 음식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 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은 대부분 학교 생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에서 음식에 대한 대화 및 음식 소비에 대한 의견은 청소년들의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패스트푸드 쿠폰 정보나 할인 혜택,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생일 파티 정보 등이 학교 친구들간의 대화를 통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패스트푸드를 포함하여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junk food)에 대한 정보가 학교 생활을 통해 공유되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의 한 초등학교 식당에는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노란색 아치가 벽에 붙어 있으며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에게는 공짜 햄버거와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맥도날드 뿐 아니라 유명한 패스트푸드 업체(피자 헛, 도미노 피자, 타코벨 등)도 초등학교의 야외 체험 학습이나 파티 등에 음식을 제공해 왔다. 패스트푸드가 초등학교의 교실 내에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쿠폰 북이나 광고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왔다.⁷⁾

음식 소비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식 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청소년들의 외식 소비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청소년 외식소비 패턴 조사와 함께 외식 소비의 지역별 차이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외식 소비 경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외식 소비 교육 및 건강한 외식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청소년들의 외식 소비 실태 및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지역 차에 따른 음식 소비 양상 및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울 강남/강북 지역,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 청소년들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 녀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03년 6월 26일에서 7월 10일에 걸쳐 우편으로 실시되었다.

청소년의 외식습관에 대한 조사 내용은 일주일 단위 외식빈도, 주로 방문하는 외식업소 형태, 주요 외식 시간, 외식 장소 선택 이유, 외식 이유 및 외식 시 주로 함께 가는 사람, 1인당 평균 외식 비용을 묻는 항목들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2. 조사 대상 구성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서울의 강남, 강북,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의 표본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집하였다. 남녀공학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의 강남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2개교, 강북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2개교, 대도시 지역(대전, 부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2개교, 지방 중소도시(경주, 김해, 동해, 마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 읍면지역(금산, 홍천, 단양, 평창)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씩을 표본 추출하여 총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추출된 각 학교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두개의 반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16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1487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결과와 분석방법은 SPSS 10.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여러 변수들과 지역별 상관관계는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수거된 설문지 조사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이 19.3%, 강남이 21.5%, 대도시가 19.6%, 중소도시가 20.8%, 읍면지역이 18.7%로 구성되었다. <Table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50.1%, 고등학생이 49.9%를 차지하였고, 성별 구성에서는 남자가 50.8%, 여자가 49.2%로 나타났다.

2. 일주일 단위 외식빈도

일주일 단위 외식빈도에 대해서는 주 1-2회가 62.7%로 가장 많았고, 1주에 3-4회는 6.9%, 1주에 5회 이상인 경우에는 3.5% 그리고 외식을 안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26.9%인 것으로 나타나, 73% 이상 대다수의 경우 주 1회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세대의 외식 빈도에 대한 신과 흥의 연구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조사 대상자의 70.6%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외식을 즐긴다고 답한 것과 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Percent(%)
Region	North Seoul	287	19.3
	South Seoul	320	21.5
	Big Cities	292	19.6
	Middle/Small Cities	310	20.8
	Small towns	278	18.7
	Total	1487	100.0
Grade	Junior High	745	50.1
	Senior High	742	49.9
	Total	1487	100.0
Gender	Male	751	50.8
	Female	727	49.2
	Total	1487	100.0

<Table 2> Frequency of eating out

	Frequency of weekly eating out				Total
	more than 5times	3-4 times out	1-2 times	No eating	
North Seoul	12(4.2)	21(7.4)	183(64.2)	69(24.2)	285(100.0)
South Seoul	15(4.8)	40(12.7)	210(66.9)	49(15.6)	314(100.0)
Big Cities	5(1.7)	14(4.8)	187(64.7)	83(28.7)	289(100.0)
Middle/Small Cities	10(3.2)	16(5.2)	194(62.6)	90(29.0)	310(100.0)
Small Towns	9(3.3)	11(4.0)	150(54.5)	105(38.2)	275(100.0)
Total	51(3.5)	102(6.9)	924(62.7)	396(26.9)	1473(100.0)

$\chi^2=60.263 p<.001$

사하게 나타나고 있다.⁸⁾

<Table 2>에 나타나 있듯이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일주일 단위 외식빈도의 경우, 1주일에 5회 이상 외식을 한다는 응답은 강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4.8%), 1주일에 3-4회 외식을 한다는 응답(12.7%)과 일주일에 1-2회 외식을 한다는 응답(66.9%)에서도 강남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어, 강남지역의 외식빈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외식을 안한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38.2%)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에는 중소 도시 지역(29.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외식업소의 분포 및 소비 수준이 청소년들의 외식 패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장 자주 가는 외식 장소

청소년들에게 가장 자주 가는 외식장소를 하나만 선택하라는 경우에는 <Table 3>에 나타나 있듯이 한식집이 33.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

음은 분식점이 17.6%, 기타가 12%. 패스트푸드점이 10.8%, 패밀리레스토랑은 10.1% 중국집은 7.2%였고, 일식집이 4.5%, 피자점은 4.3%를 차지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양식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면서도 여전히 한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서울지역의 중·고생 및 대학생, 학부모들이 외식시 선택하는 음식의 종류에 대한 박과 안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가 외식시 한식(34.5%-79.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비율은 40대(79.1%)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10대는 39.4%, 20대는 34.5%, 30대는 60.6%였다. 반면 20대가 외식으로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비율(31.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10대는 간이음식점(분식점)을 선택하는 비율(10.3%)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⁹⁾

역시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친구와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은 남녀 모두 한식(53.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패스트푸드(22.1%)

<Table 3> Preferred place for eating out

	preferred place for eating out								Total
	Snack Bar	Fastfood Restaurant	Family Restaurant	Korean Style Restaurant	Chinese Style Restaurant	Japanese Style Restaurant	Pizza House	Others	
North Seoul	38(13.4)	35(12.4)	33(11.7)	105(37.1)	9(3.2)	8(2.8)	16(5.7)	39(13.8)	283(100.0)
South Seoul	47(14.8)	43(13.5)	40(12.6)	100(31.4)	13(4.1)	15(4.7)	17(5.3)	43(13.5)	318(100.0)
Big Cities	35(12.1)	28(9.7)	27(9.3)	115(39.8)	16(5.5)	19(6.6)	17(5.9)	32(11.1)	289(100.0)
Middle/Small Cities	62(20.9)	34(11.4)	28(9.4)	102(34.3)	16(5.4)	14(4.7)	6(2.0)	35(11.8)	297(100.0)
Small Towns	73(27.5)	17(6.4)	18(6.8)	66(24.9)	50(18.9)	10(3.8)	6(2.3)	25(9.4)	265(100.0)
Total	255(17.6)	157(10.8)	146(10.1)	488(33.6)	104(7.2)	66(4.5)	62(4.3)	174(12.0)	1452(100.0)

$\chi^2=131.832 p<.001$

<Table 4> Preferred time for eating out

N(%)

	Time of eating out				Total
	Breakfast	Lunch	Dinner	Others	
North Seoul		22(7.7)	254(89.1)	9(3.2)	285(100.0)
South Seoul	4(1.3)	13(4.1)	292(91.5)	10(3.1)	319(100.0)
Big Cities		15(5.2)	268(92.7)	6(2.1)	289(100.0)
Middle/Small Cities	3(1.0)	26(8.6)	269(88.5)	6(2.0)	304(100.0)
Small Towns		16(5.9)	233(86.0)	22(8.1)	271(100.0)
Total	7(5)	92(6.3)	1316(89.6)	53(3.6)	1468(100.0)

$$\chi^2 = 36.906 \text{ } p < .001$$

로 나타났다. 반면, 분식, 중식, 일식의 선호도는 낮았다. 패스트푸드의 선호도가 분식의 8배 가량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음식 선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분식에서 패스트푸드로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또한 X세대(1999년 기준 18세에서 28세 사이의 남녀를 그 대상으로 잡음)의 외식 소비에 대한 연구에서도 X세대는 의외로 한식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4%가 한식을 선호한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이 면류나 스넥(19%), 피자 전문점이 (18.5%), 패밀리레스토랑이나 경양식점이 18.5%, 햄버거점이 10.9%로 나타났다.⁸⁾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외식 장소를 살펴 본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한식집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한식집을 선호한다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39.8%)을 보였다. 분식집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읍면지역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27.5%)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패밀리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한다는 응답에서는 서울 강남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각각 12.6%와 13.5%)을 보이고 있었다.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경향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한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주로 외식하는 시간

청소년들이 주로 언제 외식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89.6%가 저녁에 한다고 하였고, 6.3%가 점심에 한

다고 했으며 아침의 경우에는 0.5%에 그쳐 주로 저녁 때 외식을 하며 아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주로 외식을 하고 있는 시간을 살펴보면 저녁시간에 외식을 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응답률(92.7%)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이 강남지역 청소년(91.5%), 강북지역 청소년(89.1%), 중소도시 청소년(88.5%), 읍면지역 청소년(8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자주 가는 외식 장소 선택 이유

자주 가는 외식장소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의 경우 맛이 좋아서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가격이 적당해서가 16.6%, 위치가 가깝다는 이유가 8.3%였으며, 분위기가 좋아서도 4.0%에 달했다. 그 외에 기타이유 6.4%, 서비스가 좋다 1.5%, 위생상태가 청결하다가 1.2% 그리고 쿠폰사용가능도 .5%로 나타났다. 주로 맛과 가격, 위치가 가장 큰 이유로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연구 결과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외식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맛, 가격, 위생, 분위기, 서비스, 브랜드 이미지, 양, 편리성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식의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 외식 장소의 선택 기준은 달라지기도 하며, 성별에 따른 외식 장소 선택의 차이도 있음이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가격과 맛을 우선시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맛과 위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내

<Table 5> Reasons of restaurant choice

N(%)

	Reasons of restaurant choice								Total
	Taste	Atmosphere	Cost	Location	Cleanness	Service	Coupon	Others	
North Seoul	170(59.9)	13(4.6)	48(16.9)	29(10.2)	2(7)	3(1.1)	2(7)	17(6.0)	284(100.0)
South Seoul	199(62.6)	11(3.5)	48(15.1)	32(10.1)	5(1.6)	6(1.9)	3(9)	14(4.4)	318(100.0)
Big Cities	200(69.0)	8(2.8)	34(11.7)	21(7.2)	5(1.7)	2(7)	3(1.0)	17(5.9)	290(100.0)
Middle/Small Cities	183(60.6)	14(4.6)	55(18.2)	20(6.6)	4(1.3)	7(2.3)		19(6.3)	302(100.0)
Small Towns	149(54.8)	12(4.4)	59(21.7)	20(7.4)	1(4)	4(1.5)		27(9.9)	272(100.0)
Total	901(61.5)	58(4.0)	244(16.6)	122(8.3)	17(1.2)	22(1.5)	8(5)	94(6.4)	1466(100.0)

$\chi^2 = 39.851$

11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식당 선택 시에는 남녀 모두 맛, 가격, 분위기, 위생, 서비스, 브랜드의 순으로 우선시 하였으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격과 서비스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맛과 위생을 더 고려하였다. 데이트 시에는 남, 녀 모두 분위기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맛, 가격, 위생, 서비스, 브랜드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⁰⁾ 맛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서울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외식시 음식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맛, 가격, 양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영양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맛, 가격을 위주로 음식을 선택하는가 하면 여학생도 맛이 음식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¹¹⁾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식선택 기준으로 남학생의 49.3%, 여학생의 65.3%가 음식 맛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으며 여학생은 위생, 가격 순으로 선택기준을 정하였으나

남학생은 가격을 더 중시하였다.¹²⁾

6. 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청소년들이 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도 끼니해결이 52.6%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가 25.6%, 기타 14.3%, 마땅히 갈곳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4.6%에 달했고, 멋있어 보여서도 2.1%로 나타나 끼니해결과 서로 만남을 갖기 위해 주로 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Table 6>을 보면 그 중에서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응답을 했으며(58.9%) 읍면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49.8%). 만남을 갖기 위해서와 멋있어 보여서 외식을 한다는 응답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27.7%, 3.5%)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외식을 하는 주요 동기로는 끼니 해결

<Table 6> Reasons of eating out

N(%)

	Reasons of eating out					Total
	For meal	For meeting	No Place to go	For stylish manner	Others	
North Seoul	145(51.1)	75(26.4)	17(6.0)	5(1.8)	42(14.8)	284(100.0)
South Seoul	178(56.0)	84(26.4)	9(2.8)	6(1.9)	41(12.9)	318(100.0)
Big Cities	146(50.5)	80(27.7)	9(3.1)	10(3.5)	44(15.2)	289(100.0)
Middle/Small Cities	178(58.9)	68(22.5)	18(6.0)	3(1.0)	35(11.6)	302(100.0)
Small Towns	135(49.8)	68(25.1)	14(5.2)	7(2.6)	47(17.3)	271(100.0)
Total	782(53.4)	375(25.6)	67(4.6)	31(2.1)	209(14.3)	1464(100.0)

$\chi^2 = 20.251$

<Table 7> People accompanied when eating out

N(%)

	People accompanied when eating out						Total
	Same Sex Friends	Different Sex Friends	Family	Relatives	Alone	Others	
North Seoul	59(20.7)	6(2.1)	210(73.7)		8(2.8)	2(7)	285(100.0)
South Seoul	82(25.7)	18(5.6)	209(65.5)	5(1.6)	1(3)	4(1.3)	319(100.0)
Big Cities	51(17.6)	6(2.1)	220(75.9)	3(1.0)	4(1.4)	6(2.1)	290(100.0)
Middle/Small Cities	77(25.3)	19(6.3)	191(62.8)	7(2.3)	3(1.0)	7(2.3)	304(100.0)
Small Towns	77(28.3)	11(4.0)	158(58.1)	11(4.0)	4(1.5)	11(4.0)	272(100.0)
Total	346(23.5)	60(4.1)	988(67.2)	26(1.8)	20(1.4)	30(2.0)	1470(100.0)

$\chi^2 = 60.076$ $p < .001$

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나 사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혹은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어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00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외식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10대(36.1%)와 40대(30.9%)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20대는 '사교적인 목적'으로 외식을 하는 비율(33.1%)이 높았고, 30대는 '식사준비가 번거로워서' 외식을 하는 비율이(22.2%)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50대 이상은 '맛을 즐기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비율이(33.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⁹⁾

한편, 성별이나 가격대에 따라 외식 동기가 달라짐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서울시내 강남지역과 대학가의 13개 주요 외식업체를 무작위 추출하여 각 10명의 X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외식 동기로 남성은 '식사를 위하여'라고 답한 비율이 48.7%, '만남을 위하여'라고 답한 비율이 40.3%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은 '만남을 위하여' 외식을 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한편 음식점 유형별로 방문동기를 조사한 결과, 가격대에 따른 외식 동기가 다름을 보인다.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저가 가격 음식점(1인당 2,000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는 음식점, 분식점, 아이스크림점, 제과점, 학교매점, 학교식당, 편의점, 길가 노점 등)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전체의 71.2%로 나타났으며, 중가 가격 음식점(1인당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의 비용을 지불하는 음식점, 피자점, 치킨점, 햄버거점, 중국음식점 등)은 예정된 모임을 위해서 방문하거나(49.1%),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39.7%)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가 가격 음식점(1인당 5,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음식점, 갈비집, 양식집, 일식집, 뷔페식당,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경우는 특별 기념 행사(생일, 입학 등)를 위해서 방문하거나(48.4%),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22.8%)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

7. 외식시 주요 동행인

청소년들이 외식을 할 때 주로 함께 가는 사람은 <Table 7>에 보여지듯이 가족이 6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동성친구가 23.5%, 이성친구는 4.1%로 3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 기타가 2%, 친척은, 1.8%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는 1.4%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며 혼자 외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외식시 주로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가족과 함께 간다는 응답에서는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응답률(75.9%)을 보였고 다음이 서울 강북(73.7%), 서울 강남(65.5%), 중소도시(62.8%), 읍면지역(58.1%) 순으로 나타났다. 동성친구라는 응답에서는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28.3%)을 보였고 대도시가 가장 낮은 응답률(17.6%)을 보였다. 이성친구와 함께 간다는 응답에서는 중소도시 청소년들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6.3%)을 보이며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8> Average cost of lunch

N(%)

	Average cost of lunch					Total
	Less than 2,000 won	2,000-5,000 won	5,000-10,000 won	10,000-20,000 won	More than 20,000 won	
North Seoul	40(14.3)	144(51.6)	57(20.4)	25(9.0)	13(4.7)	279(100.0)
South Seoul	33(10.5)	130(41.3)	105(33.3)	27(8.6)	20(6.3)	315(100.0)
Big Cities	59(20.6)	143(50.0)	60(21.0)	17(5.9)	7(2.4)	286(100.0)
Middle/Small Cities	93(31.7)	117(39.9)	53(18.1)	23(7.8)	7(2.4)	293(100.0)
Small Towns	77(30.2)	118(46.3)	47(18.4)	10(3.9)	3(1.2)	255(100.0)
Total	302(21.1)	652(45.7)	322(22.5)	102(7.1)	50(3.5)	1428(100.0)

$\chi^2 = 97.875 \text{ p} < .001$

8. 1인당 평균 외식비용

1) 평균 점심 비용

청소년 1인당 한끼의 평균외식 비용에 대한 질문의 경우에는 점심, 저녁과 특별 행사인 경우를 나누어 물어 보았는데, 점심의 경우는 <Table 8>에 나타나있듯이, '2천원-5천원'의 경우가 4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5천원-1만원'은 22.5%였고, '2천원 이하'의 경우도 21.1%를 차지했다. '1만원-2만원'은 7.1%, 그리고 '2만원 이상'은 3.5%를 보였다. '5천원 이하'가 66.8%를 보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5천원 이하'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평균 점심 비용을 살펴본 결과, 서울 강북(51.6%)과 대도시(50.0%)가 '2천원-5천원'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원-1만원'이라는 응답은 서울 강남지역(33.3%)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1만원-2만원'이라는 응답에서는 서울 강북지역(9.0%)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2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서울 강남지역(6.3%)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천원 이하'라는 응답은 중소도시(31.7%)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체로 5천원 이하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남지역에서는 5천원 이상의 비용으로 점심을 먹는 청소년들도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1인당 평균 저녁 비용

<Table 9>에 제시되어있듯이 1인당 평균 저녁 비용은 '5천원-1만원'이 31.1%로 가장 많았고, '2천원-5천원'이 28.5%, '1만원-2만원'은 19%, '2만원 이상'은 11.6%였고 '2천원 이하'는 9.7%에 그쳐 저녁의 경우에는 점심과 달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청소년 1인당 평균 저녁 비용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5천원-1만원', '1만원-2만원'이라는 응답은 강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38.1%, 23.7%)을 보이고 있고 읍면지역에서 가장 낮은 비율(25.3%, 10.0%)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2만원 이상'이라는

<Table 9> Average cost of dinner

N(%)

	Average cost of dinner					Total
	Less than 2,000 won	2,000-5,000 won	5,000-10,000 won	10,000-20,000 won	More than 20,000 won	
North Seoul	11(4.0)	63(22.7)	99(35.7)	59(21.3)	45(16.2)	277(100.0)
South Seoul	14(4.5)	57(18.3)	119(38.1)	74(23.7)	48(15.4)	312(100.0)
Big Cities	28(9.9)	85(30.1)	84(29.8)	61(21.6)	24(8.5)	282(100.0)
Middle/Small Cities	45(15.2)	93(31.3)	77(25.9)	52(17.5)	30(10.1)	297(100.0)
Small Towns	41(15.7)	109(41.8)	66(25.3)	26(10.0)	19(7.3)	261(100.0)
Total	139(9.7)	407(28.5)	445(31.1)	272(19.0)	166(11.6)	1429(100.0)

$\chi^2 = 114.230 \text{ p} < .001$

<Table 10> Average cost of eating out for special day

N(%)

	Average cost of eating out for special day					Total
	Less than 2,000 won	2,000-5,000 won	5,000-10,000 won	10,000-20,000 won	More than 20,000 won	
North Seoul	5(1.8)	19(7.0)	60(22.1)	71(26.1)	117(43.0)	272(100.0)
South Seoul	5(1.6)	5(1.6)	74(24.1)	92(30.0)	131(42.7)	307(100.0)
Big Cities	11(3.9)	31(11.1)	71(25.4)	75(26.8)	92(32.9)	280(100.0)
Middle/Small Cities	10(3.4)	31(10.6)	84(28.7)	81(27.6)	87(29.7)	293(100.0)
Small Towns	8(3.3)	34(13.9)	108(44.3)	50(20.5)	44(18.0)	244(100.0)
Total	39(2.8)	120(8.6)	397(28.4)	369(26.4)	471(33.7)	1396(100.0)

$\chi^2=100.628 p<.001$

응답에서는 서울 강북(16.2%), 강남(15.4%)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았을 때 5천원에서 2만원대로 저녁을 먹는 비율은 강남(61.8%), 강북(57.0%), 대도시(51.4%), 중소도시(43.4%), 읍면지역(3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특별한 행사시 1인당 평균 외식 비용

기념일 등 특별한 행사 때의 비용의 경우는, '2만원 이상' 이 33.7%, '5천원-1만원' 은 28.4%, '1만원-2만원' 이 26.4%였고, '2천원 이하' 는 2.8%로 특별행사의 경우에는 반 이상의 응답자(60.1%)가 1만원 이상의 외식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을 보면 지역별 특별행사시의 외식 평균 비용의 경우 지역마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2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에서는 서울 강북지역(43.0%)과 강남지역(42.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32.9%), 중소도시(29.7%), 읍면지역(18.0%)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만원-2만원' 의 경우 서울 강남이 가장 높은 응답률(30.0%)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도시(27.6%), 대

도시(26.8%), 서울 강북(43.0%), 읍면지역(18.0%)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5천원-1만원' 의 경우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44.3%)을 보이고 있다. 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72.7%), 강북(69.1%), 대도시(59.7%), 중소도시(57.3%), 읍면지역(38.5%)의 순으로 나타나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9. 청소년 용돈과 외식비

1) 청소년 용돈 규모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한달 용돈 규모를 살펴보면 '2만원에서 4만원' 이라는 응답이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Table 11>에서 보여지듯이 대도시 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 유의적인 차를 보이고 있다. '4만원에서 6만원 이하' 라는 응답에서는 서울 강남지역이, '6만원에서 8만원' 이라는 응답에서는 서울 강북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8만원에서 10만원' 이라는 응답에서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Table 11> Amount of pocket money

N(%)

	Amount of pocket money							Total
	less than 20,000 won	20,000-40,000 won	40,000-60,000 won	60,000-80,000 won	80,000-100,000won	more than 100,000 won	none	
North Seoul	72(25.1)	92(32.1)	40(13.9)	18(6.3)	16(5.6)	17(5.9)	32(11.1)	287(100.0)
South Seoul	66(20.6)	95(29.7)	64(20.0)	14(4.4)	19(5.9)	26(8.1)	36(11.3)	320(100.0)
Big Cities	73(25.3)	110(38.1)	47(16.3)	21(7.3)	8(2.8)	4(1.4)	26(9.0)	289(100.0)
Middle/Small Cities	74(24.0)	110(35.7)	47(15.3)	17(5.5)	19(6.2)	24(7.8)	17(5.5)	308(100.0)
Small Towns	93(33.7)	105(38.0)	40(14.5)	9(3.3)	1(4)	5(1.8)	23(8.3)	276(100.0)
Total	378(25.5)	512(34.6)	238(16.1)	79(5.3)	63(4.3)	76(5.1)	134(9.1)	1480(100.0)

$\chi^2=73.875 p<.001$

<Table 12> Amount of pocket money spending for eating out

N(%)

	Amount of pocket money spending for eating out							Total
	less than 10,000 won	10,000 -20,000 won	20,000 -30,000 won	30,000 -40,000 won	40,000 -50,000 won	more than 50,000 won	none	
North Seoul	112(39.0)	56(19.5)	23(8.0)	18(6.3)	9(3.1)	10(3.5)	59(20.6)	287(100.0)
South Seoul	120(37.9)	72(22.7)	35(11.0)	17(5.4)	18(5.7)	15(4.7)	40(12.6)	317(100.0)
Big Cities	123(42.6)	63(21.8)	28(9.7)	8(2.8)	4(1.4)	5(1.7)	58(20.1)	289(100.0)
Middle/Small Cities	112(36.5)	64(20.8)	37(12.1)	19(6.2)	19(6.2)	5(1.6)	51(16.6)	307(100.0)
Small Towns	120(43.8)	68(24.8)	19(6.9)	9(3.3)	5(1.8)	3(1.1)	50(18.2)	274(100.0)
Total	587(39.8)	323(21.9)	142(9.6)	71(4.8)	55(3.7)	38(2.6)	258(17.5)	1474(100.0)

$\chi^2 = 50.188 \text{ } p < .01$

였고, '1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에서는 강남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2만원 이하'라는 응답에서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 청소년 용돈중 외식비 지출 규모

<Table 12>에 제시된 각 지역별 청소년들의 용돈중 외식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1만원 이하'가 전 지역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1만원-2만원'이라는 응답에서도 읍면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2만원-3만원'이라는 응답에서는 중소도시 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3만원-4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과 '안쓴다'는 응답에서는 서울 강북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4만원-5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은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에 '5만원 이상'은 서울 강남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용돈과 비슷하게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일주일 단위 외식 빈도, 주요외식업소 형태, 외식 시간과 외식 장소를 선택한 이유, 외식 자체의 이유와 외식시 주요 동반자, 일인당 평균외식비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외식경향 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1) 일주일 단위 외식 빈도에서 청소년들의 일주일 단위 외식빈도는 일주일에 한 두 번이 62.7%로

가장 많았고, 1주에 5회 이상인 경우에는 3.5% 그리고 외식을 안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26.9%인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경우(73.1%) 외식을 주 1회 이상은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주일에 5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경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1주일에 3-4회 외식을 한다는 응답과 일주일에 1-2회 외식을 한다는 응답에서도 강남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식을 안한다는 응답에서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중소도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가장 자주 가는 외식 장소 하나를 선택하라는 경우에는 한식집이 33.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은 분식점이 17.6%, 기타가 12%, 패스트푸드점이 10.8%, 패밀리레스토랑은 10.1%, 중국집은 7.2%였고 일식집, 4.5%, 피자점은 4.3%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한식집을 선호한다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분식점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읍면지역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패밀리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한다는 응답에서는 서울 강남지역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3) 청소년들이 외식은 주로 언제 하는가에 대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9.6%가 저녁에 한다고 하였고, 6.3%가 점심에 한다고 했으며 아침의 경우에는 0.5%에 그쳐 주로 저녁때에 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자주 가는 외식장소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가 61.5%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가격이 적당하다가 16.6%, 위치가 가깝다는 8.3%였으며, 분위기가 좋아서도 4.0%에 달했다. 주로 맛과 가격, 위치가 주요 외식 장소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지역별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5) 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끼니해결이 52.6%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만남을 가지기 위해가 25.6%, 마땅히 갈곳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4.6%에 달했으며 멋있어 보여서도 2.1%로 나타나 끼니해결과 서로 만남을 갖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로 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6) 청소년들이 외식을 할 때 주로 동행하는 사람은 가족이 67.2%로 가장 많았고, 동성친구가 23.5%, 이성친구는 4.1%, 친척은 1.8%, 혼자서 1.4%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며 혼자 외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청소년 1인당 한끼의 평균외식 비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점심의 경우, '2천원에서 5천원'의 경우가 4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5천원에서 1만원'은 22.5%였고, '2천원 이하'의 경우도 21.1%를 차지했다. '1만원에서 2만원'은 7.1%, 그리고 '2만원 이상'은 3.5%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5천원 이하'가 66.8%를 보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5천원 이하'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남지역에서는 '5천원 이상'의 비용으로 점심을 먹는 청소년들도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녁의 1인당 평균비용의 경우, '5천원에서 1만원'이 31.1%로 가장 많았고, '2천원에서 5천원'이 28.5%, '1만원에서 2만원'은 19%, '2만원 이상'은 11.6%, '2천원 이하'는 9.7%의 비율로 나타났다. 저녁 비용으로 '5천원에서 2만원' 사이 지출하는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61.8%), 강북(57.0%), 대도시(51.4%), 중소도시(43.4%), 읍면지역(35.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강남지역은 저녁 비용으로 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자가 39.1%나 되었다.

기념일 등 특별한 행사 때의 비용의 경우는, '2만원 이상'이 33.7%, '5천원에서 1만원'은 28.4%, '1만원에서 2만원'이 26.4%였고, '2천원 이하'는 2.8%

밖에 안 써 특별행사의 경우에는 반 이상의 응답자가 '1만원 이상'의 외식비용을 쓰고 있었다. 특별행사시 외식 비용으로 '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72.7%), 강북(69.1%), 대도시(29.7%), 중소도시(57.3%), 읍면지역(38.5%) 순으로 나타나 읍면지역이 가장 적게 쓰고 있었다.

'2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에서는 서울 강북지역(43.0%)과 강남지역(42.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32.9%), 중소도시(29.7%), 읍면지역(18.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보았듯이 청소년 대다수가 1주일에 1회 이상 외식을 하고 있으며 주로 저녁시간에 많이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가고 있는 외식장소의 경우에는 건강에 좋은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주로 맛이나 가격의 적당성에 의존을 하고 있어 한창 성장할 나이인 중고등학교시기에 영양의 불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 서울 강북, 강남 순으로 외식 빈도와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시화의 정도가 높고 외식업체의 분포가 많으며,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빈도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자주 가는 외식장소의 경우에는 서구지향적 성향이 더 강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주로 한식을 선호했으나 그 다음에 선택하는 장소가 분식점,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레스토랑인 것으로 보아 선호하는 정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외식의 빈도와 지출이 높은 강남의 경우 서구적인 외식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외식 경향을 볼 때, 입시준비와 과외로 인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비중이 높을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결과에 나타나듯이 건강한 식습관 보다는 입맛이나 분위기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고 외식비도 주로 5천원 이하의 비용을 들일 때 균형된 식단으로 식사하리라고 보기가 어렵다. 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어서 식단 선택에는 도움이 조금 될 수도 있으나 학교에 다니는 기간에는 주로 친구들과 식사를 하게되므로 또래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식단선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후속내용으로는 외식을 하는데 있어 남녀의 차이와 외식이외에 가정에서 하는 전체적인 식단의 차이를 살펴보는 청소년들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비만이나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이 불균형해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단 개발과 그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Na, J. An Inquiry in the Background Growth of the Foodservice Industry. *J Tourism Management*. 3(0): 114-138, 1998.
- 2) Shin, JY, Park, KY. Introduction to Foodservice Industry, Daewangsa. Seoul, 1999
- 3) Daehong Communications Inc. Marketing Strategy Institute. Korean People: Lifesyles, singles and twenties. 1999.
- 4) Jeong, J-H, Kim, S-H. A Survey of Dietary Behavior and Fast Food Consumption by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 Korean Home Economics*, 39(10): 11-124, 2001.
- 5) You, DR, Park, GS, Kim, SY, Kim, HH, Lee SJ.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Focused on College Students in Taegu · Kyungbuk. *J Korean Home Economics*, 38(2): 27-40, 2000.
- 6) Shin, A-S, Roh, S-B.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Busan. *Korean J Dietary Culture*. 15(4): 287-293, 2000.
- 7) Levine, J. Junk-food Marketing Goes Elementary. *The Education Digest*. (65)5: 32-34.
- 8) Shin, JY, Hong, SH. The Current Foodservice Trends: Focused on "X" Generation. *J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2)1: 151-179. 2000.
- 9) Park, JW, Ahn, SJ.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s Dining-Out Behaviors Classified by Age and Gender. *Korean J of Dietary Culture*. 16(4): 276-295, 2001.
- 10) Kim H, Chung CE.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6(2): 147-157, 2001.
- 11) Song, BC. Dietary Patterns of the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Seoul Focusing on the Eating-out and Food Preference. *J Konkuk Natural Science*. 9(2): 269-280, 1998..
- 12) Ro, H-K. Factors in Food Selection and Eating Ou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4(3): 241-249, 1999.
- 13) Yang, I-S, Lee, J-M, Cha J-A, Han j-J.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owards Restaurant Service Attributes. *Korean J Dietary Culture*. 11(5): 663-671, 1996.